

[대치오르비] 2021 수능 대비 정규반 8~9월 강의계획서

선생님	유현주 선생님
슬로건	<p>유현주 수능 국어 2021 수능 대비 시즌4                  《유현주 국어 Final ① 수능 정리 자료의 끝!》                  (신규생 이전회차 강의 모두 무료 수강가능)</p>
강좌명	<p>《9월모평대비 6주완성 2 track 강의》</p> <p><b>총 7시간 ⇒ 주1회 수강료 동일</b>  <b>[4주 기준 28만원]</b></p> <p>현주간지 8~9월호 자료 전체 무료,                  오프라인 전용 상상 / 한수 모의고사 제공!                  (6주동안 상상 5회 + 한수 7회 = <b>총 12회</b> 제공)</p> <p><b>(수능 전까지 상상 15회 + 한수 16회 = 총 31회 제공 예정)*</b></p>
대상학년	<p>고3 및 N수생</p> <p>(신규 등록해도 이전 자료 제공하고, 이전 회차 강의는 모두 무료 제공하여                  수업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p>
수업시간 및 회차	<p><b>track 1</b>                  2020. 8/8 ~ 9/12 (6주) - [토] PM 6:30 ~ 10:00                  (정규반 3시간 30분 : 개념심화반)</p> <p><b>+</b></p> <p><b>track 2</b>                  2020. 8/10 ~ 9/7 (5주) - [월] PM 6:30 ~ 10:00                  (실전모의고사반 현장응시 + 해설 3시간 30분 : 대치오르비)</p> <p><b>총 7시간 ⇒ 주1회 수강료 [28만원] 동일</b></p> <p>[정규계속반] 2020. 8/8 (토) 개강 - PM 6:30 ~ 10:00</p>
학습목표	<p>꼼꼼하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확실히 잡는 강의 + 완벽 학생 개인별 맞춤 관리                  + 완벽한 콘텐츠 (유현주국어 콘텐츠[현주간지] &amp; 한수/상상 모든 콘텐츠 병행)</p>

QT/RT

6주 완성 track1 수업과 track2 수업으로  
독서/문학/문법 심화개념 완벽 정리 + 실전모의고사로 완벽한 9평 대비  
(80분 응시 + OMR체크, 개인별 성적분석자료 제공)

(자료 : 코리아에듀의 '현주간지 6월호 자료 전체 무료 /  
오프라인 상상 모의고사 5회분 / 오프라인+온라인 한수 모의고사 7회분  
유현주국어 개념심화 교재  
학생 개인별 성적분석자료, 독서/문학/ 화작문 개별 과제 제공)

## 시즌4 Final ① - 총 6주

주차	강의 내용	
Track1 (정규반)  1주차 ~ 6주차  (8/8 ~ 9/12) [토]	<b>독서</b>	<b>고난도 지문 분석</b> (LEET/MEET/DEET + 고난도 기출 지문 분석) 거시+미시 독해의 기준 잡는 방법 이해 [지문 분석 + 문항의 정답/오답의 원리 분석] → 구조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독해 방법 제시
	<b>문학</b>	<b>EBS 작품 최종 분석</b> (EBS 수능특강 / 수능완성 필수 작품들 정리 + 기출 지문 분석) 상세한 작품 분석 및 수능 적용 개념들 정리 [작품 분석 + 개념어 정리 + 작가 정리 + 변형 문제]
	<b>화작문</b>	<b>고난도 기출 + N제 + 사관/경찰대/학평 + EBS 분석</b> (EBS 수능특강 / 수능
Track2 (실전 모의고사반)  1주차 ~ 5주차  (8/10 ~ 9/7) [월]	<b>오프라인 상상 / 한수  모의고사 1회분 현장응시</b>	오프라인 전용 상상 / 한수 모의고사 中 1회분씩 선별하여 수업 시간에 80분 재고 문제풀 후, 해설강의 진행  (track1 수강시 track2는 무료로 수강 가능하며 둘 중 하나만 수강해도 수강료는 동일하게 1주 : 7만원입니다. track2 신청은 꼭 유현주국어연구실을 통해 해주셔야하니 track1 등록 후, 010-3574-7316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track2를 응시하지 못할 경우, 차주 인강으로 보강영상이 업로 드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업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2021 6월 모의평가 100% 적중했습니다

## 1) 문학 중요도 A++ (현대소설 A)에서 100% 적중했습니다.

: 6모 전 배포한 문학 중요도 자료와 현주간지 교재들에서 A++ ~ A 에서만 모든 작품 적중했습니다!!

특히, 현대소설의 경우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인데 현주간지에 수록되어 있던 지문 전체가 그대로 6모에 수록되어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 2021 6월 모의평가 + 현주간지 적중내역 >**  
**EBS 연계 지문 100% 적중 [A++ ~ A]**  
**+ 비연계 지문까지 적중!**

모두 **A++ ~ A** 에서 적중되었고,  
현대소설은 **EBS에서 수록되지 않았던 부분** 이  
**현주간지 11주차에 수록된 부분**  
**전문이 그대로 출제** 되었습니다

고전시가: 정철 관동별곡 [적중도 A++]  
현주간지 13주차 수록 (EBS 비연계 적중)

현대시: 조지훈 산상의 노래 [적중도 A++]  
현주간지 23주차 수록, 12주차, 5주차 수록

고전소설: 전우치전 [적중도 A++]  
현주간지 20주차 수록, 17주차 수록

현대소설: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적중도 A]  
현주간지 11주차 수록  
(EBS 비수록 부분, 현주간지 전문 그대로 출제)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다. 동네 곳곳의 닭들이 헛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갈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다.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카악!”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뽕국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끼이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나는 재없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 뜰 녀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딱히서 죽을 뻔했다. 움직이다가는 더 딱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르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젊은 놈의 자숙아, 와 밥만 해 놓고 물은 안 떠다 냈나!”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어 물을 뜨러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종내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만근뿐만 아니라 토끼도 둘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안간힘을 써야 했다.
- ② 황만근은 토끼가 남기고 간 밥을 주워 와서 자기 이야기의 증거로 삼았다.
- ③ 황만근은 토끼의 위험에 겁이 났지만 오히려 으름장을 놓으며 저항했다.
- ④ 밤새 토끼와 대결한 황만근은 날이 밝을 무렵에야 짐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⑤ 황만근은 토끼를 만난 일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 서로 일관성을 유지했다.

**01** **윗글의**

- ① 어리석고 화하고
- ② 서술자가 석, 평가
- ③ 서술자가 관성을 높여
- ④ 이야기 내부를 면을 드러내
- ⑤ 등장인물이 의 행동을 전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98p 적중 !!**  
**EBS 수록 X 부분**  
**현주간지 전문 그대로 적중**

현대소설은 EBS에서 다뤘던 작품이지만 EBS에 수록된 부분이 아니라, 현주간지 11주차에 나온 파트가 전문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샘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  
**조지훈, 산상의 노래**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현대시 시22~24번**

122~24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높디높은 산만부**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둥이  
 내 울음 같 았을  
 푸하운 땅에서 울어 왔는지

기둥 서 있을  
 시들은 꽃들의 구부러진  
**산상의 노래**의 한복판에서  
 흔들려 흔들리는  
 울음의 울음소리

아니 높디높은 산만부  
 꽃다운 하늘이  
 내 영혼의 울음소리  
 아득 속에 내내 뻗던 생애가 순드라.

꽃피 보이는 아득  
 미르노는 빛살은  
 시절살달려 풍겨 갔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귀리의  
 가락을 마음드나

세월 줄기서 구름 노래 부르듯  
 시들은 꽃피는  
 먼 조그 방파제는 여섯살을 사당이라.

**어디 높디높은 산만부**  
 높은 산에서 못 박힌 듯 기둥이  
 내 울음 같 았을  
 푸하운 땅에서 울어 왔는지

(나) **꽃이 피었다.**  
 도시에 나무에게  
 번이 입을 거뻐한 것이다  
 이 도시의 나무들이면 된 뒤부터  
 속이 울음을 줄이곤했다. 트러피라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를 나는 곧 알게 되었다. 반면  
 살아 있지 않더라도 풀만 푸하운다. 내게서  
 속이 울음을 감추는 대신  
 비노는 법은 이렇게 된 시를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시를  
 그가 짓질 수 없겠는 건  
 풀만 푸하운다. 번이  
 풀을 푸하운다는 건,  
 내성이 생긴 나무를  
 밑에 깔고 번이 푸하운다

풀이 적었다는 것  
 도르면 시화를는 시를을 끝에서 피구한 날  
 실경중과 풀만에서 시를이더 귀하는 풀  
 향을 수 없다 나무는, 땅고 보면  
 귀속으로 부르다

~조지훈, '산상의 노래', 1~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정서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가)는 명랑 미소를 환유하여 대상의 활동은 유쾌하고, (나)는 단정적 절제를 활용하여 주체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는 인과적인 사물을 상징적으로 써서 화자의 소감을 전달하고 있다.  
 ㉤ (가)와 (나)는 도회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장적 현실에 대한 각박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3.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의 '높디높은 산만부'에서 화자를 통해 볼 때는 [나]의 '어디 높디높은 산만부'에서의 화자의 대상이 아니다.  
 ㉡ [가]의 '꽃 피는 아득'과 [나]의 '꽃피 보이는 아득'은 '아득'이라는 단어를 통해 화자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가]의 '꽃 피는 아득'과 [나]의 '꽃피 보이는 아득'은 '아득'이라는 단어를 통해 화자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가]의 '꽃 피는 아득'과 [나]의 '꽃피 보이는 아득'은 '아득'이라는 단어를 통해 화자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가]의 '꽃 피는 아득'과 [나]의 '꽃피 보이는 아득'은 '아득'이라는 단어를 통해 화자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24. <조지훈 시>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조지훈, '산상의 노래', 1~

**6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샘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  
**조지훈, 산상의 노래**

**현주간지 6월호 23주차**

**작품 본문**

**산상(山上)의 노래 - 조지훈**

높디높은 산만부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둥이  
 내 울음 같 았을  
 푸하운 땅에서 울어 왔는지

기둥 서 있을  
 시들은 꽃들의 구부러진  
**산상의 노래**의 한복판에서  
 흔들려 흔들리는  
 울음의 울음소리

아니 높디높은 산만부  
 꽃다운 하늘이  
 내 영혼의 울음소리  
 아득 속에 내내 뻗던 생애가 순드라.

꽃피 보이는 아득  
 미르노는 빛살은  
 시절살달려 풍겨 갔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귀리의  
 가락을 마음드나

세월 줄기서 구름 노래 부르듯  
 시들은 꽃피는  
 먼 조그 방파제는 여섯살을 사당이라.

**어디 높디높은 산만부**  
 높은 산에서 못 박힌 듯 기둥이  
 내 울음 같 았을  
 푸하운 땅에서 울어 왔는지

(가) **꽃이 피었다.**  
 도시에 나무에게  
 번이 입을 거뻐한 것이다  
 이 도시의 나무들이면 된 뒤부터  
 속이 울음을 줄이곤했다. 트러피라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를 나는 곧 알게 되었다. 반면  
 살아 있지 않더라도 풀만 푸하운다. 내게서  
 속이 울음을 감추는 대신  
 비노는 법은 이렇게 된 시를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시를  
 그가 짓질 수 없겠는 건  
 풀만 푸하운다. 번이  
 풀을 푸하운다는 건,  
 내성이 생긴 나무를  
 밑에 깔고 번이 푸하운다

(나) **꽃이 피었다.**  
 도시에 나무에게  
 번이 입을 거뻐한 것이다  
 이 도시의 나무들이면 된 뒤부터  
 속이 울음을 줄이곤했다. 트러피라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를 나는 곧 알게 되었다. 반면  
 살아 있지 않더라도 풀만 푸하운다. 내게서  
 속이 울음을 감추는 대신  
 비노는 법은 이렇게 된 시를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시를  
 그가 짓질 수 없겠는 건  
 풀만 푸하운다. 번이  
 풀을 푸하운다는 건,  
 내성이 생긴 나무를  
 밑에 깔고 번이 푸하운다

**현주간지 6월호 23주차**  
**45p 적중!!**

**6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샘이 직접 제출한**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과거제 지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문학 16~21번**

116~2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꽃이 피었다.**  
 도시에 나무에게  
 번이 입을 거뻐한 것이다  
 이 도시의 나무들이면 된 뒤부터  
 속이 울음을 줄이곤했다. 트러피라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를 나는 곧 알게 되었다. 반면  
 살아 있지 않더라도 풀만 푸하운다. 내게서  
 속이 울음을 감추는 대신  
 비노는 법은 이렇게 된 시를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시를  
 그가 짓질 수 없겠는 건  
 풀만 푸하운다. 번이  
 풀을 푸하운다는 건,  
 내성이 생긴 나무를  
 밑에 깔고 번이 푸하운다

(나) **꽃이 피었다.**  
 도시에 나무에게  
 번이 입을 거뻐한 것이다  
 이 도시의 나무들이면 된 뒤부터  
 속이 울음을 줄이곤했다. 트러피라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를 나는 곧 알게 되었다. 반면  
 살아 있지 않더라도 풀만 푸하운다. 내게서  
 속이 울음을 감추는 대신  
 비노는 법은 이렇게 된 시를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시를  
 그가 짓질 수 없겠는 건  
 풀만 푸하운다. 번이  
 풀을 푸하운다는 건,  
 내성이 생긴 나무를  
 밑에 깔고 번이 푸하운다

이러한 개혁은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것이 아니었다. 과거처럼 시행했던 국가정책에서는 수백 년에 걸친 과거제를 재검토하는 일이 없었다. 지방 방식이 개조되는 부속들은 과거제의 중추를 흔들었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나 유망한 유망자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졸은 낮은 수준의 인재를 선발하는 데만 그쳤다. 또한 학부 교육은 과거제에 대한 비판을 자극할 수 있었다. 또한 학부 교육은 과거제에 대한 비판을 자극할 수 있었다. 또한 학부 교육은 과거제에 대한 비판을 자극할 수 있었다.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인용하여 특정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샘이 직접 제출한**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과거제 지문**

**현주간지 3월호 9주차 수특 독서 50p 지문 분석**

**도덕 배경지식**

- ▶ **관학:**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 ▶ **사학:** 사학은 두 가지가 있다. '학의 사학'이 있고, '공과 사의 사학'이 있다. 저술에서는 후자를 뜻한다. 간단히 말하면 사교학이다.
- ▶ **과제제:** 유교전통을 이용하여 과거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암기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 ▶ **공과제:** 조선시대의 교육 커리큘럼이다. 수도와 지방에서 명칭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동일했다.
- ▶ **관제:** 토지를 국유화(나라가 관리)하고,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배분하는 것이다.

**추가 읽기**

**과제제의 문제점**

현재 비슷한 제도로는 수능, 더 나아가서 학력고사 등이 있다. 수능과 같이 생각하는 시험이 아닌, 암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필지와 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또한, 암기시험인 만큼 모범답안 확보 등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에 그 의미가 변질되기도 하였다.

**연계 토막**

**EBS 비문학 지문**  
**6모 변형 지점과**  
**동일하게 적중!**

17. 지방에서 이 연극이 교육의 기대가 있었다. 대안학교의 교육이 가능하면, 지방에서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자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공급자의 선택에 따른 성과물이다. 그러나 이 학생은 결국 불어났다. 그렇고 그래서라도 시교육 불이 일어나고, 당시 정부에서는 공학계 계층을 만드는 등 공학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만들었다.

18. 또한, 교육이 아닌, 토지제도에 대해 연계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과전법과 학전법이다. 과전법은 전권적 권력 분리를 토지를 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 관리에 너무 많이 참여 새로운 관리자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재 권력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선법이 만들어졌다.

19. 조금 근원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토지제도도 아무런 줄은 없다.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식민지적 토지소유의 기반을 다졌다.



## 5) 맞춤형 관리 + 1등급 도약을 위한 기출 기반 개인 트레이닝 콘텐츠

### (학생 개인별 콘텐츠 제공)

최근 트렌디한 고난이도 기출 지문을 스스로 체화할 수 있는 맞춤 트레이닝 동영상과 정규 수업의 원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담겨 있는 분석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성적 추이 추적 및 맞춤형 트레이닝 자료가 제공되므로, 개인별로 취약한 부분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 6) 대치동의 가장 좋은 자료들을 모두 제공합니다.

### 1년 내내 상상/한수 전체 콘텐츠 제공

시기에 맞춰 6/9월 모의평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콘텐츠들을 모두 제공합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에게 수능과 가장 근접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로 평가받는 상상/한수 모의고사의 모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매주 현주간지와 대치동 현장 콘텐츠까지 모두 수업에서 제공하여 수능 전까지 양질의 콘텐츠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7) 완벽한 복습의 끝!

### 출석하면 모든 학생에게 복습 영상과 수업 내용을 정리한 복습시트를 제공합니다.

수업을 수강한 이후, 복습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영상과 텍스트 모두를 제공합니다. 복습시트의 경우, 수업 내용 전체를 문서화하여 현장을 들은 학생의 경우 텍스트만 읽어도 복습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 강의는 본질을 향해야 합니다.

## 1) 수능 국어의 기준을 잡는 수업

안정적 1등급은 각 갈래별로 완벽히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시험장에서 어떤 지문이 와도 학생이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체화하여 시험장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합니다.

### ■ 독서 - 안정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의 기준을 잡은 후, → 동일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기준을 잡습니다. 최근 기출 독서의 유형들을 모두 정리하고, 긴 지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본기를 다집니다. 기출 + 이감 모의고사&간쓸개 (EBS 변형문제)를 통해 이를 완벽히 보완하여 1등급 도약을 준비합니다.

### ■ 문학 - 어려운 문학에 대비하는 법! - 다시 기본으로, 문학 개념어 분석과 작품 분석을 철저하게!

EBS 연계 작품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먼저 역시 기출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어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작품별 특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출 + EBS 연계교재 작품 분석집 + 이감 모의고사&간쓸개를 통해 갈래별 출제되는 포인트와 문학 개념어를 체계적으로 잡습니다.

### ■ 화법과 작문 / 언어(언어와 매체-기존 교육과정의 '문법')

: 화작문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파트 문법은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꼭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

6년간 오르비 atom 문법 1위 교재인 '문법의 끝'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심화 문법 개념들을 다집니다. 화법, 작문의 경우도 EBS 지문과의 연계에 집중하여 기출 유형들을 완벽히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전에서 강한 개념 수업을 진행합니다.

## 2) 한 번만 강의를 들어도 수능 국어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 수업과 숙제가 연결되어 학생 스스로가 분석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 강의 구성 - 거미손 커리큘럼(거시+미시 손분석)

분석 체계가 없는 학생에게 분석의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독해능력향상, 작품 이해, 문항 분석, 화작문의 개념 적용이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거미손' 숙제 파일을 통해 수업과 과제가 짜여있어 일관된 방법을 체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번 수업은 촬영되어 인강으로 복습이 가능하며 학습에 필요한 추가 영상들도 무제한 제공되고, 학생 상담 및 Q&A 질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3) 실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6평, 9평, 수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실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2020 6평, 9평, 수능 후기입니다. 그 외에 해설강의 후기도 첨부합니다.

송용신 (고려대 의대)

유현주 국어 수강생

현역 국어 5등급 → 20수능 국어 1등급,  
전과목 3문제 틀림

“하나의 스킬만으로 비문학 정답률이 올라가는 제 자신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신기했습니다. 문학은 EBS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강조하신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와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유현주 선생님하면 문법을 빼놓을 수 없는데, 문법의 끝은 역대급입니다.

많은 후배님들도 유현주 선생님의 좋은 콘텐츠와 강의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예과 20학번 송용신 [현역 국어 5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전과목 3개틀림]

비문학이 B문학인줄 알았던 학생...

안녕하세요 유현주쌤 강의를 들었던 송용신입니다. 저는 노베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였기 때문에 수능과 관련된 국어는 아예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며 수능 국어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마음 먹었을 때에는 심지어 비문학이 B문학인줄 알기까지 했었던 노베이스였습니다. 문학A, B하는 것처럼 수능 국어의 A문학, B문학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학생이 유현주쌤을 만났고, 비문학을 대응하는 법부터 배워나갔습니다. 하나의 스킬만으로 비문학 정답률이 올라가는 제 자신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신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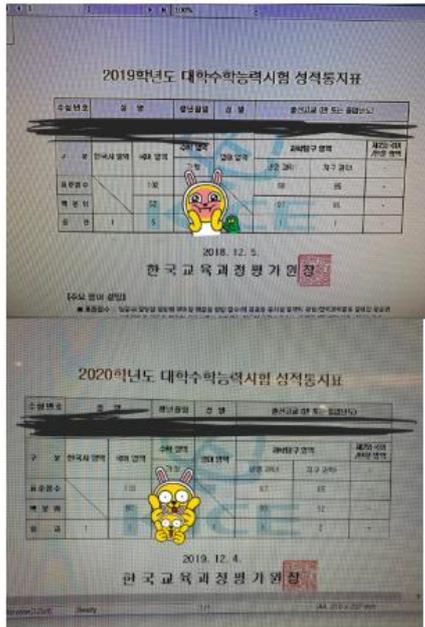
문학도 문학 나름대로 배워나갔는데, 각 갈래별 대응법에 맞춰 하나의 정형화된 풀이를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특히 문학은 EBS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강조하신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와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유현주쌤하면 문법도 뺄 수 없는데, 하나의 큰 백과사전 같은 문법의 끝이 역대급입니다. 흔히 문법 보기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넣는다고 알려져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적당히 지엽적이면서도 수능을 위한 개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휴학 반수로 수능 수업은 국어밖에 듣지 않았는데 현역 때 68점(5등급)이었던 성적에서 2020 수능 국어 1등급이 나온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후배님들도 현주쌤의 좋은 콘텐츠와 강의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년 유현주쌤 후기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26755852>



작년 수능 국어 성적표, 올해 20학년도 성적표입니다. 보시는 것과같이 작년 국어 5등급에서 이번 수능 1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과 달리 국어에 재능이 없어서 국어라는 과목이 가장 큰 발목을 잡아왔는데요.. 올

### 원광대학교 치의예과 20학번 안OO [19수능국어 5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작년 수능 국어 성적표, 올해 20학년도 성적표입니다. 보시는 것과같이 작년 국어 5등급에서 이번 수능 1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과 달리 국어에 재능이 없어서 국어라는 과목이 가장 큰 발목을 잡아왔는데요.. 올해는 더욱 더 국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매우 실망스러운 점수를 6월 모의평가 때 받았고, 충격으로 현강을 알아보다가 우연하게 유현주 선생님 단과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첫 수업을 받고 저의 국어 공부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비문학을 읽을 때 지문을 쭉 끝까지 읽고 난후에,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꺾쇠 괄호 대괄호( ) [ ] 표시 쓰는 법을 지문에 적용하면서 비문학을 접근해 나갔습니다. 이런 괄호 표시를 통해 어려운 비문학을 기호들로 체크하며 읽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지문을 찾아서 꼼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방법을 체화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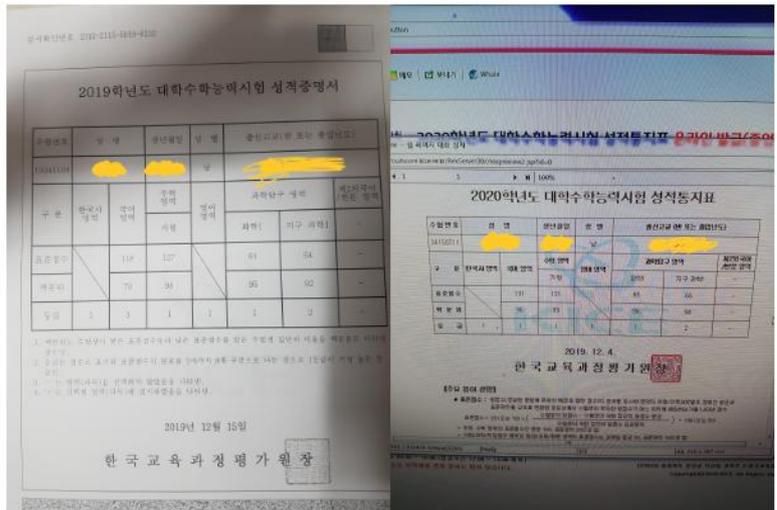
선생님 방법을 통해, 중요한 문장들이 눈에 확 들어와서 비문학 시간을 줄였고, 줄인 시간만큼 화작문과 문학에 시간을 쓸 수 있어서 화작과 문학 실력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특히, 거미손 분석 자료를 통해서 기출 지문들을 연습하면서 체화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수모의고사, 화작문의 끝 등등의 양질의 자료를 마구 주셔서 자료는 절대 부족할 일이 없었습니다.(사실 저것들도 다 소화하기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 질문도 다 받아주시는 게 전 가장 좋았습니다. 수업 내용이나 선생님 방법 관련된 질문은 조교가 아닌 선생님에게 여쭙서 해결하는 게 가장 최상이니까요. 또, 숙제도 개인별 맞춤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3번 보는 동안 수능을 포함한 8번의 평가원 시험에서 1등급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선생님 덕분에 마지막 수능때 1등급을 생에 처음으로 쟁취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국어 덕분에 최저도 수월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유현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유현주쌤 현강 후기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26661413>



유현주쌤 안녕하세요 올해 중앙대 의대에 합격한 현강생입니다. 그 성대 다니던 학생이에요~  
 저는 수능만 치면 국어는 항상 3등급이었습니다. 6평과 9평에선 2등급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수능만 되면 3등급만 뜨더라고요. 올해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유현주쌤 현강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문학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전까진 무조건 지문 이해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딱히 다른 스킬은 없었죠. 하지만 수능날엔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하나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특히 작년에 가능세계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 지문을 첫번째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첫문단부터 이해가 안 되더니 결국 지문 전체가 꼬여버렸고 국어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유현주쌤 수업을 듣고 글을 체계적으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과감하게 넘어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과감히 넘어가더라고 표시할 부분은 표시하고 중요한 곳은 힘 주며 읽으니 지문이 잘 읽히더라고요. 결국 이번 수능에선 처음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의예과 20학번 양재현 [19수능국어 3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유현주쌤 안녕하세요 올해 중앙대 의대에 합격한 현강생입니다. 그 성대 다니던 학생이에요~

저는 수능만 치면 국어는 항상 3등급이었습니다. 6평과 9평에선 2등급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수능만 되면 3등급만 뜨더라고요. 올해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유현주쌤 현강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문학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전까진 무조건 지문 이해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딱히 다른 스킬은 없었죠. 하지만 수능날엔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하나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특히 작년에 가능세계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 지문을 첫번째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첫문단부터 이해가 안 되더니 결국 지문 전체가 꼬여버렸고 국어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유현주쌤 수업을 듣고 글을 체계적으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과감하게 넘어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과감히 넘어가더라고 표시할 부분은 표시하고 중요한 곳은 힘 주며 읽으니 지문이 잘 읽히더라고요. 결국 이번 수능에선 처음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학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쌤이 체크하라는 부분은 체크하고 강조하신 부분은 강조해서 읽으니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도도 올라갔습니다. 쌤만 따랐더니 이번 수능에서 문학을 다 맞았습니다.

수업 이외의 부분도 좋았습니다. 질문도 항상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상담도 잘 해주시고...무엇보다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막 이상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비에스 연계 자료가 포함되어서 나오니 연계 공부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맞춤 숙제도 주셔서 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때문에 의대 최저를 맞춘 적이 없었는데 쌤 덕분에 이번에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술로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 2019-11-15 16:14:46 조회수 2,567 🗨️ 11

**재수생의 작년 수능국어 4등급-> 20수능 96점 후기 (유현주쌤 캐리 2)**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25421955>



<https://orbi.kr/00023047903>

위에 6월때가 캐리 1

는술준비하면서 책상 정리하다가 후기 써봘니당

일단 저는 겨울이 아니라 재종 탈주후 방향하다가 4월쯤 압축특강 하실때 첨 들었어요 국어는 방향성을 못잡아서 한창 힘들땐데 비문학 푸는법 듣고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덕분에 6월도 인생 처음으로 1등급이라는 등급도 받아보고 9월은 컨디션 망했으니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그때 점수가 수능으로 와서 96이 되었지 않았나 싶네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20학번 박재현 [19수능국어 4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우선 저는 겨울이 아니라 재종 탈주후 방향하다가 4월쯤 압축특강 하실 때 첨 들었어요 국어는 방향성을 못잡아서 한창 힘들땐데 비문학 푸는법 듣고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덕분에 6월도 인생 처음으로 1등급이라는 등급도 받아보고 9월은 컨디션 망했으니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그때 점수가 수능으로 와서 96이 되었지 않았나 싶네요

일단 2020 수능 후기는

**화작:** 사실 화작은 파이널 이감/한수때 10분 안쪽으로는 끝내려고 해서 시간은 많이 절약했어요 지문 길이가 좀 길긴 하던데 매주 화작의 끝 프린트 나눠주시던 것으로 일주일 전부턴 연습해서 무난하게 넘겼네요

**문법:** 현주쌤 문법의끝 최고..ㄱㄱ 대비가 안되었다면 한두개는 더 틀렸을거 같습니다. 사실 1회독을 수능 2주인 가 3주전에 끝내서 제 문법이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드릴듯 싶지만 14번 하나만 틀려서 다행이네요.

**문학:** 사실 문학이 유현주쌤 도움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오르비에도 올리셨지만 종강때 고전시가 전문 분석들 나눠주셨는데 없는 시간에 뭘 더 중요시할까 하다가 가장 강조하신 월선헌만 전문 3번 본거같아요 옥루 나오는 부분 해석이 헛갈려서 수능 전날밤에도 질문드렸는데 그부분이 선지로 나올줄은 ㄱㄱ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씨삼대륙이나 자전거 도둑 정도는 정신없이 읽고 풀어서 기억도 잘 안나네요. 맨 뒷장 윤동주 시도 현주쌤 연계분석서 덕분에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적중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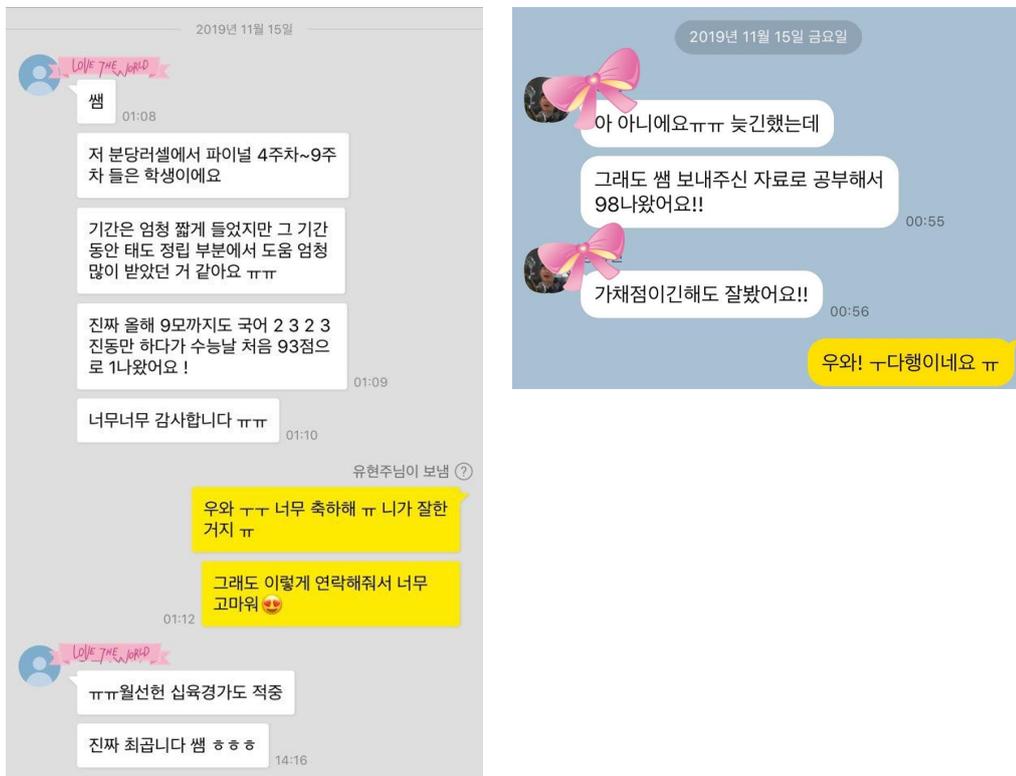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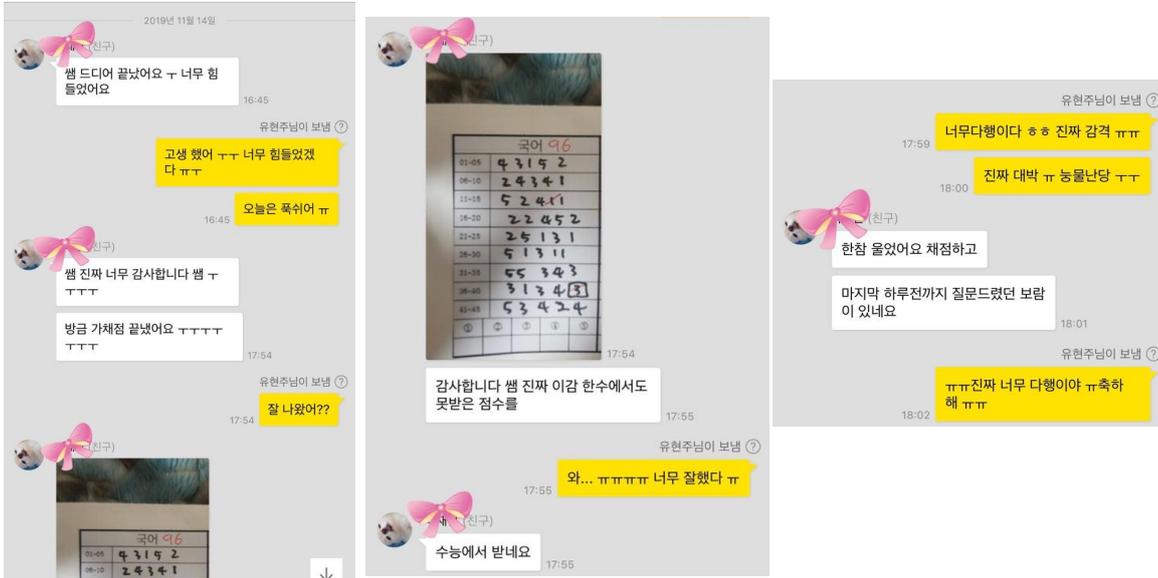
**비문학:** 작년에는 구조독해가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읽었는데 올해는 현주쌤이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는거 같아요 거시독해 미시독해부터 시작해서 파이널 이감/한수까지 가르쳐주신 행동영역이 수능때 정말 빛을 발한거 같네요 41 번이었던 경제 보기 시간없어서 못풀었는데 결국 틀렸네요 이 지문 말고 배이즈랑 생명은 진짜 쉽다고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영역도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된 부분이에요!

비문학에 대해서 더 말해보자면 껍쇠, 괄호, 넘버링은 비문학 독해 방향성 못 잡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될거 같아요. 저도 무작정 줄치고 동그라미하면서 아무생각없이 읽던 학생중 한명이었지만 P&S구조, 물리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 어디까지의 이해하면서 읽고 어디부터는 보기문제 풀때 대조해서 봐야하는지 등 쌤 만나면서 독해실력 정말 많이 향상했습니다!

필력이 떨어져서 두서없이 쓴 거 같지만 그래도 쌤 만나고 수험생다운 공부를 시작한거 같아 감사해서 후기 남겨 봅니다. 매주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는 가끔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끝내려고 노력했던게 수능국어 96이라는 결과로 나온거 같아요

1년전 43245를 받고 한참 낮은 꿈을 꾸었던 제가 더 높은 꿈을 꿀수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혹시라도 국어의 갈피를 못잡고 있는 내년 수험생이 이 후기를 본다면 현주쌤 수업 강추합니다 저처럼 1년도 안되어서 성적 오르실 수 있어요

〈2020 수능 후기〉





관리 프로그램

<http://www.korean-edu.co.kr>

▶ 대치동 현주쌤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수업 문의
9:00 ~12:30		강남 오르비	대치 러셀	유현주 국어: 010- 3574-7316
14:00 ~17:30	Track 2 대치 오르비	Track 1 정규반	분당 러셀	수업 등록
18:30 ~22:00	모의고사 현장 응시반 대치 오르비	대치 오르비	평촌 러셀	메가스터디 대치러셀학원: 02-2138-1010 메가스터디 분당러셀학원: 031-629-1010 메가스터디 평촌러셀학원: 031-341-6500 대치 오르비학원: 02-3454-0207 강남 오르비학원: 02-522-0207

<9모 대비 6주 특강>

Track 1+Track 2 = 주 2회 총 7시간  
수업료는 주 1회 7만원으로 동일!

\*시즌2 모평대비 특강은 Track1+Track2가 같이 진행되는 주 2회 세트 수업입니다. 주 2회 총 7시간으로 진행되지만 수업료는 주 1회 7만원으로 동일하며 Track1 수강시 Track2는 무료로 수강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수강해도 수강료는 동일하게 7만원이고, Track2 신청은 꼭 유현주 국어연구실을 통해 해주셔야 합니다.

\*Track1 등록후, 010-3574-7316으로 문의 주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Track2를 응시하지 못할 경우 차주 인강으로 보강 영상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업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p>1. 과정별 본 강의 진행 (미니모의고사응시 : 30분 + 독서, 문학, 화작+언어(문법) 개념강의 : 3시간) (+ 보충 영상 및 복습 영상은 모두 무료 제공)</p> <p>2. 매일매일 질문 답변 및 Q&amp;A 답변 (<a href="http://www.orbi.kr">www.orbi.kr</a>에서 매일 밤 질문받습니다. 답변이 밀리지 않아 상시 질문이 가능합니다.)</p> <p>3. 매주 정규 과제 부여 &amp; 동영상 강의로 복습 가능</p> <p>4. 학생 개별 성적 분석 및 개인별 맞춤 틀린 문항 분석 자료가 나갑니다.</p> <p>5. 1주일 내내 충분히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공부량 + 현강 학생용 손글씨 분석서 제공</p>		
수업기간	2020. 8/8 (토) ~ 수능까지 정규반 : PM 6:30 ~ 10:00		
특이사항 (휴강 등)			
교재명	유현주국어 현주간지 무료 (시중가 : 1권당 9,900원) + 상상모의고사 + 한수모의고사 수업 진행시 제공	교재가격	현주간지 무료 상상 5회 (각 10,000원) 한수 7회 (각 10,000원) = 총 12회분 [12만원] * 한 주 수업당 2회분 모의고사 제공 (분할결제 가능)